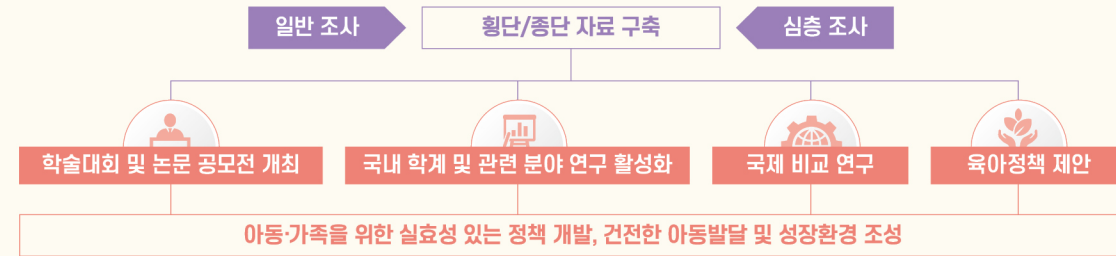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공헌



한국아동패널 연구 분석 결과

- 변화하는 환경과 부모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여아 선호 사상의 증가
 -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남편에 비해 낮은 편임
 - 아버지의 양육협조 및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됨
-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공
 - 영유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취업 확률은 높아지나 비정규직이 다수임
 -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확률이 낮아짐
 -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보다 높음
- 한국 아동의 생활 및 발달 진단
 - 부모의 음주·흡연이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임
 - 초등 4학년 의사소통능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높음
 - 초등 패널아동의 1/4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함

한국아동패널 제공 자료 및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 제공 자료 : 연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도구프로파일, 코드북 등
- 다운로드 방법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panel.kicce.re.kr) > 자료실 > 원시자료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한
아
패
국
동
널

한
아
패
국
동
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TEL | 02-398-7715, 02-398-7729 FAX | 02-398-7792
 E-mail | panel@kicce.re.kr HOMEPAGE | http://panel.kicce.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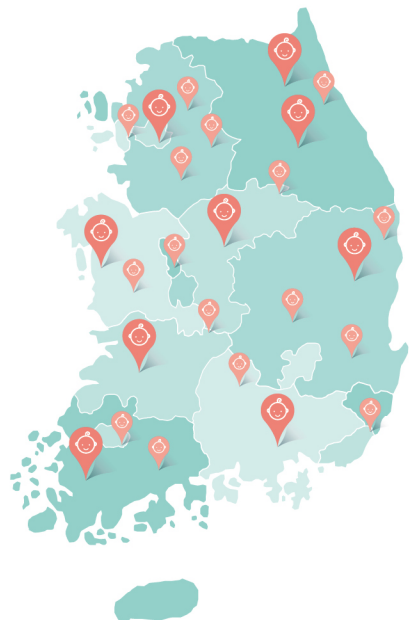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생아 패널 연구이며,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성인이 되는 2027년까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Cross-sectional)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Longitudinal)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합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는 아동의 성장·발달, 가정의 양육 환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에서의 아동 경험 등이 포함되며, 수집된 자료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개발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대상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 아동이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과 학교의 담임교사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다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 2,150명이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하여 2단계로 표집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 충청/강원, 경북, 경남, 전라)으로 구분한 후 신생아를 분만하는 의료기관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집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패널아동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약 1,500가구가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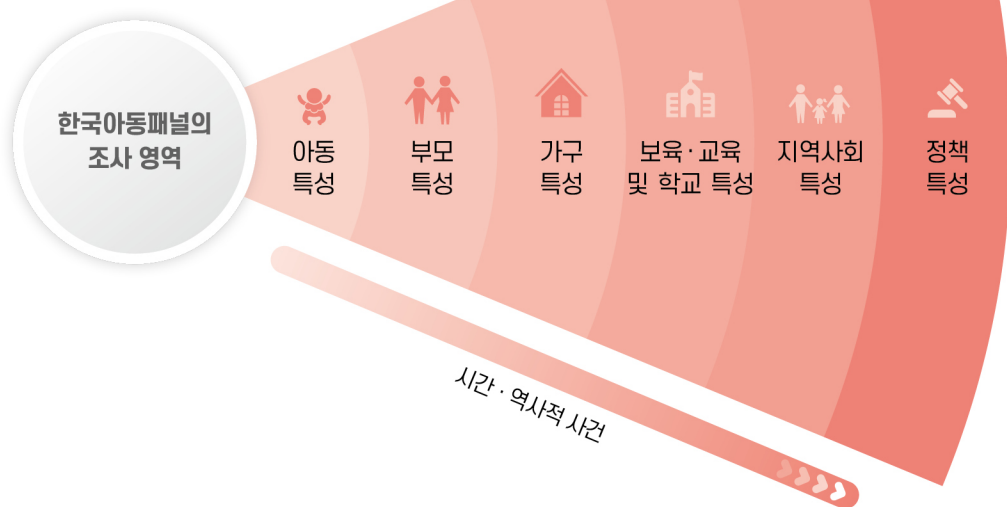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표집 의료기관

한국아동패널 조사 내용과 특징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이론과 Elder의 생애이론을 기초로 아동발달, 부모 특성, 가족 특성,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합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매해 조사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부터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아동은 물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조사를 실시하므로,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아동의 특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달 수행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 응답만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아동의 발달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방법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성됩니다. 일반조사는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150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매해 실시하며, 심층조사는 발달상 중요한 시기에 일부 패널을 선별하여 전문가를 통해 수행검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조사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가구 방문 전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조사용 질문지가 발송되며, 가구 방문 시 TAPI(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이용한 면접과 지필식 질문지, 조사원의 환경 관찰, 그리고 아동발달 측정을 위한 개별 수행 검사를 실시합니다. 가구 방문 후에는 아동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웹(Web)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층조사는 일반조사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하여 심층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방문 수행검사 또는 온라인, TAPI조사로 진행합니다.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이 출생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총 20차의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영유아기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초등학교	7세~12세						■														
중등학교	13~15세														■						
고등학교	16~18세																		■		
성인기	19세																			■	
심층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